

6·25전쟁기 뼈라의 사회기호학적 분석

朴 玟 秀*

1. 머리말
2. 6·25전쟁의 심리전과 뼈라
3. 6·25전쟁기간 뼈라의 분석방법
4. 뼈라의 사회기호학적 분석
5. 맺음말

1. 머리말

현대의 전쟁이 전선과 후방,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 총력전(total war)¹⁾이 되면서 전쟁의 성격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의식적 활동으로서 심리전이 중시되고 있다.²⁾ 6·25전쟁은 냉전체제의 격돌지로서 본격적인 현

* 언론학 박사

- 1) '총력전'은 나폴레옹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가의 물질적, 정신적 전 역량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특히, 애국심에 호소하며 국민열정을 '우리의식' 속에 결집시켜 국민적 사기를 충전케 한다.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국민사상 내지는 국민의식은 자연히 밖으로 향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차원에서 심리전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나남, 1992), p. 173.

대전의 양상을 띤 그리고 심리전을 적용시킨 전쟁으로 심리전은 병력과 무기의 우열 그리고 전략과 작전의 전개에 못지않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로 이해되었다. 그 어느 전쟁보다도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을 바탕으로 치러진 동족 간의 전쟁으로 언어나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어 이민족의 전쟁보다 상대적으로 심리전의 효과가 더 높았다고 한다.³⁾ 어쩌면 단순한 영토 분쟁이거나 물질적 이해로 얽혀진 전쟁이었다면 6·25전쟁은 그렇게 극심한 심리전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상처가 이만큼 크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반대로 6·25전쟁이 치열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양상으로 치러진 것은 특히, 그것이 동족 간의 살육이라는 끔찍한 양상을 보였던 것은 심리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작된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관계있다. 도저히 적이 될 수 없는 민족 간의 핏빛 싸움은 심리적으로 극대화된 증오와 혐오를 깔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뼈라⁴⁾는 선동·선전을 위한 작은 종이 한 장에 엄청난 이데올로기의 공세와 그것으로 조직된 제도와 법률,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표징일 뿐 아니라 사회의 저변에 깔린 의식과 문화현상의 핵심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이다.⁵⁾ 기계복제 시대의 인쇄매체를 이용한 심리전 무기인 전쟁 뼈라는 피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다. 그것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의 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와 국방부뿐만 아니라 각 부대 지휘관의 이름으로 뿌려졌으며 적군과 아군 그리고 인민과 국민 가릴 것 없이 살포되었다.

2)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개양상」, 『한국사론』 제50호, 서울대 국사학과, 2004, pp. 369-404.

3) 황근, 「설득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본 한국전쟁 심리전 평가」, 『軍史』 제30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95, pp. 164-205.

4) 뼈라는 전단, 벽보 등을 뜻하는 bill의 일본어 발음 '비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경음화 현상으로 '뼈라'가 되었다. 미국의 관련 문헌은 주로 'leaflet'으로 표현했다. 당시 우리말로는 전단보다는 뼈라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5) 김진송, 「전쟁 뼈라와 슬로건 사회」, 『문화읽기: 뼈라에서 사이버문화까지』(현실문화연구, 2000).

6·25전쟁에 사용된 뼈라에 대한 연구로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가 펴낸 『한국전쟁기 뼈라』에서 정용욱은 유엔군과 북한군의 뼈라를 대상으로 주제내용과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⁶⁾ 이 연구는 교정당사국인 유엔군과 북한군 쌍방의 군사전략과 전쟁수행 방식 및 전쟁 철학의 차이가 반영되었고 뼈라의 주제 제시방식은 서로 상대방의 뼈라를 모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의 연구는 발행주체, 뼈라의 중심주제, 대상 수용자, 메시지 처리기호, 사용 언어, 메시지 소구방식 및 가장 중요한 내용의 제시방법 등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고찰했으며⁷⁾ 이윤규는 6·25전쟁에서 심리전 조직과 전개 상황을 개관하고 심리전의 대표적인 매체인 뼈라의 주제, 형식, 뼈라 작전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⁸⁾ 황근은 6·25전쟁기간 심리전 양상을 커뮤니케이션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심리전은 전술적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심리전으로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하고 장기적인 효과에 목적이 있었고 유엔군의 심리전은 전술적인 성향이 강해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고 단기효과에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⁹⁾

그밖에도 미국의 전술심리전으로 수행된 뼈라 선전, 확성기 방송, 라디오 방송과 적의 투항 이유에 대한 연구,¹⁰⁾ 전쟁 초기, 휴전기, 무력투쟁기로 구분한 심리전 연구,¹¹⁾ 6·25전쟁 시기별 미군심리전 정책과 기구를 고찰한 연구¹²⁾ 등이 있고 6·25전쟁시 미군의 심리전 양상을 소개한 피즈

- 6)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호, 한국역사연구회, 2004, pp. 97-133.
- 7) 김영희, 「한국전쟁기간 뼈라의 설득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08, pp. 306-333.
- 8) 이윤규,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6·25전쟁과 심리전』(지식더미, 2006).
- 9) 황근, 「설득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본 한국전쟁 심리전 평가」, 『軍史』 제30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95, pp. 164-205.
- 10) 최용성,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적 효과분석」, 『軍史』 제50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2003, pp. 233-256.
- 11) 김종숙, 「6·25전쟁기 심리전 운용실태 분석」, 『軍史』 제53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2004, pp. 101-142.
- 12) 장용민, 「한국전쟁 전반기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고찰」, 『軍史』 제55호, 국방부 군사편

(Pease),¹³⁾ 애브너(Abner)¹⁴⁾와 6·25전쟁의 심리전 운용에 있어 이데올로기와 행동과학자들의 연구를 이념전쟁으로 규정한 로빈(Robin)의 연구¹⁵⁾도 있다.

이와 같이 6·25전쟁기간 심리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뼈라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25전쟁 당시의 뼈라를 분석하는 것은 냉전 초기 뼈라의 사회기호학적 사례를 고찰한다는 것이며 그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상징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6·25전쟁의 심리전에서 뼈라가 갖는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에 주목하여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국군이 제작하여 살포한 뼈라의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적 특성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비록 뼈라에 담긴 정보가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6·25전쟁의 성격이 전쟁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규정되었고 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전쟁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된 주제와 문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시 살포된 뼈라 42종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6·25전쟁기간 발행되었던 뼈라의 기호학적 시각에서 전반적인 특징과 경향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2. 6·25전쟁의 심리전과 뼈라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적 상황에서 1948년 남북한이

찬위원회, 2003, pp. 315-349.

- 13) Pease, Stephen, E.(1992), *PSYWAR: Psychological warfare in Korea 1950~1953*, Harrisburg, PA.: Stackpole Books.
- 14) Abner, Alan, K.(2000), *Psywarriors, Psychological warfare during the Korean War*, Shippenburg Pennsylvania: Burd Street Press.
- 15) Robin, Ron(2001),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Culture and Politics in the Military Intellectual Complex*,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분단된 채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38선에서 충돌이 지속되면서 냉전체제 구축의 봉쇄선(containment line)이 되었다. 전쟁은 38선 주변의 전선을 중심으로 진지전의 성격을 띠었으며 전쟁의 경과에 따라 남한에서 북한으로 철수하지 못한 북한군들이 산으로 올라가 형성된 빨치산 부대의 활동은 1952년 중반까지 이어졌다. 6·25전쟁은 남한 쪽에 미국을 비롯한 16개 유엔회원국이 참전했으며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1950년 10월, 중국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6·25전쟁은 좌우의 선이 분명한 심리전의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더 정교하고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수많은 뼈라를 양산하였다. 뼈라들은 대상이 정확히 고려되고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되며 그 효과가 정확히 예측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전쟁에 지치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병사들과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못 잡는 주민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폭력적인 위협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전후방의 약한 고리들을 찾았다. 전쟁의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제, 상대의 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효과, 그리고 아군의 결집과 인민의 결속을 위한 장치가 포함되었으며 고도의 심리적 전술과 세련되고 극단화된 표현이 강구되었다.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은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적이나 자국민, 우방집단을 대상으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정책 및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유리한 감정과 태도, 행위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획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정치학 대사전』에서는 “심리전이란 심리적으로 싸우는 전쟁을 말하며 신경전 또는 선전전이라고도 한다. 적대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통일을 파괴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심리전은 적대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국민의 사기를 고취시킴으로써 적의 심리전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민과 군대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심리전은 신문, 라디오, 영화, 인쇄물, 전단, 확성기 등을 매체로 고도의 심리전 기술 및 방법이 총동원된 선전의 전략적, 전술적 응용이다”라고 기술되고 있다.¹⁶⁾ 한국

육군의 심리전 교범은 “심리전이란 국가 정책의 효과적인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체측 외의 모든 국가 및 집단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을 주체측이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⁷⁾

심리전의 기본원리는 자극(stimulus)에 대한 반응(response)의 원리로서 심리전의 대상(organization)이 되는 인간의 관능에 주의력을 제공하여 기대치의 심리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심리전의 대상은 국가, 집단, 조직, 특정개인이며 이들은 모두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정신에 어떤 심리적인 자극을 주어야 효과적인 반응, 즉 주체측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가 심리전의 핵심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관, 사생관, 국가관 등을 형성하고 있어 고정관념을 파괴시키고 주체자의 뜻대로 새로운 관념을 불어넣어 그들의 감정과 태도를 변경시키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심리전에서는 자극→대상→반응이라는 심리전의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결·명쾌하게 제시해야 하며 상징이라는 기호를 이용하여 사상, 감정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과장하며 해로운 사실은 왜곡·축소하거나 무시하고 주제를 일정하게 하여 중심이 되는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반복에서 오는 권태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적 논점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지배적 감정에 호소하고 그들이 가진 기존 태도를 심리전 내용과 결합시켜 대중의 심리 내부에 있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감정을 구체적인 심리전 과정에서 환기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심리전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심리전의 주체, 대상, 매체, 주제, 반응의 5개 요소가 재조정되어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진다.¹⁸⁾ 심리전은 주체측이 목

16) 박영사, 『정치학 대사전』(박영사, 1984), pp. 950-951.

17) 육군본부, 『심리전』(육군본부, 1993), p. 8.

표대상 집단에게 심리전 내용을 효과적인 매개체를 통하여 전달한 다음 그 반응을 측정 및 검토하여 그 당시의 변화하는 국내의 사정과 연결된 새로운 심리전 상황 판단으로 재조정하고 실시하는 순환,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주체측은 심리전 내용을 수시로 보장 및 수정하는 심리전의 재조정을 통해 목표대상 집단에 존재하는 여러 심리적 취약점인 불평불만, 반항심, 회의감, 고독감, 바라는 것과 금급한 것 등을 발견하여 정리하고 그 반응을 정확히 예견하여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표대상 집단의 환경조건에 맞추어 적시적소에 적당한 주제와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다.

심리전의 내용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심리전의 매체로는 인쇄매체, 전파매체, 대인매체, 물자, 문화, 시설, 개시, 조직, 상징, 소리, 말 등으로 다양하다.¹⁹⁾ 6·25전쟁기간에는 라디오방송, 뼈라, 확성기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당시 라디오 수신기 보급이 적었고 직접 전투 현장에서 라디오 수신기를 접촉하기 어려워 실제 가장 많이 활용된 매체는 뼈라였다. 뼈라는 1장의 종이에 심리전 주체의 메시지를 간단한 문자, 그림, 사진 등으로 수록하여 대상자에게 전파하는 매체로서 인쇄매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단은 목표대상 집단의 계층별 전파와 발행자의 의도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 제작이 가능하며 장기 보관 및 대외 확산 전파력이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시 대적심리전에 많이 활용되었으며 분단국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심리전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시각수단을 활용하여 목표대상자에게 심리전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목표대상이 현재 처해 있는 조건, 위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제작되기 때문에 모양, 지질, 색채 등 많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전단을 받아 본 목표 대상자들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유엔군은 전쟁발발 직후 미 극동사령부의 심리전과(psychological war-

18) 고준봉, 『심리전략개론』(고려서적, 1982).

19) 조용갑, 『국방 심리 전략과 리더십』(북코리아, 2006).

fare branch, PWB)에서 6월 28일 처음 제작해서 한국에 뼈라를 살포했으며 뼈라의 주대상 수용자는 남한의 군대와 주민이었다. 남한 군인들에게는 최대한 항전하고 현위치를 고수하라고 격려하고 남한주민들에게는 유엔과 우방국들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²⁰⁾ 북한군을 대상으로 한 뼈라는 7월 17일 80만장을 뿌린 '낙하산뉴스(parachute news)'라는 명칭의 신문형식의 뉴스뼈라가 처음 발행, 살포되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1953년 휴전까지 25억장 이상을 살포했다.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은 전쟁승리를 위해 김일성이 교시한 "우리의 정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널리 선전해야 하며 모든 것을 미제와 이승만 역도를 격멸 소탕하는데 바치도록 인민들을 고무 격려하여야 합니다"²¹⁾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개되었다. 즉 "모든 역량과 수단을 전쟁의 승리로 복종시키고 신속성과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판보도기관들은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전시 적국와해공작사업(적공사업)²²⁾을 수행하게 하였다. 전쟁기간 북한의 심리전은 남한 주민에게 공산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점령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 정치선전과 전략 심리전 및 유엔군과 한국군의 전의상실을 위한 전술 심리전으로 전개되었다.²³⁾

20) Daugherty, William E 1951, ORO-T-3(EUSAK): Evaluation and analysis of Leaflet Program in the Korean campaign, June-December 1950. ORO, JHU, FEC. 한국학중앙연구원, 『심리전자료집』(선인, 2005), pp. 125-164.

2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2~23권(평양: 과학·백과 서적출판사, 1981~1982).

김영주·이범수 공편, 『북한 언론의 이론과 실천: 원전을 통해 본 그 이론, 역사, 매체, 정책, 사상』(나남, 1991), p. 181.

22) 6·25전쟁 당시 북한의 적군와해공작사업은 적공사업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미군의 심리전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한다(방선주 해설,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한국전쟁기 뼈라』(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I, II, III, 2000)).

23) Pettee, George S.(1951), ORO-T-3(FEC): Psywar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ORO, JHU, FEC.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심리전자료집』 II(선인, 2005), pp. 1-89.

<표 1> 주제별 분석대상 뼈라 분류

구 분	유엔·한국군(19건)	중국·북한군(23건)
투항(귀순) 권유	21, 22, 23, 25, 41	10, 15, 16, 24, 26~31
전의상실 유도/향수자극	32~36	14, 17~20
이간획책	1~3, 5~8	11, 12
휴전회담촉구/전쟁반대 평화주장	·	37~39, 42
미제/이승만 도당 및 소련과 중국의 꼭두각시 북한 비판	4	9, 13

* 숫자는 뼈라의 연번 번호

3. 6·25전쟁기간 뼈라의 분석방법

이 연구는 역사적 문헌연구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고찰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뼈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뼈라는 앞에서 소개한 『한국전쟁기 뼈라』²⁴⁾에 실린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국군 발행 뼈라 42종이다. 뼈라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에 수록된 뼈라 중 발행주체, 주제별로 대표적인 특성이 포함된 뼈라를 선정하여 분석하더라도 당시 뼈라의 전반적인 성격과 경향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호학적인 연구를 위해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은 내용분석 방법론과 달리 준엄한 샘플링 절차를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기호학자들이 이미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그것들이 개념적으로 관심을 끌만큼 중요한 것이 되고 있는가를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기호학적인 방법론은 양적인 방법론과 달리 이미지를 선택하고 찾아내는 방식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기호학은 극히 소수의 이미지들에 대한 자세한 사례연구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러한 사례연구는 그것의 분석적 완전성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다.²⁵⁾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기호학의 이론적 접근으로서 『한국 전쟁기 뼈라』에서 주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미지들을 선택하였다.

6·25전쟁기간 뼈라에 대한 주요 분석내용으로 발행주체는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국군으로 분류했다.

24) 6·25전쟁기 뼈라들 중에서 이 연구에 적합한 뼈라를 선정하여 분석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자료집에 실린 뼈라들 가운데 UN군 뼈라는 맥아더 장군 문서관과 미 육군 군사연구소에 소장된 것이고 북한과 중국군 뼈라는 미국 국립문서관 소장 북한 노획문서 가운데 방선주 교수가 기밀해제시킨 것들이다.

25) Gillian Rose(2001), *Visual Methodologies*, London: SAGE. P. 73.

뼈라의 중심주제는 김영희(2008)의 뼈라주제를 참고하여 투항(귀순) 권유, 전의상실 유도/향수자극, 이간획책, 휴전회담촉구/전쟁반대 평화주장, 미제/이승만 도당 및 소련과 중국의 꼭두각시 북한 비판으로 분류하였다. 메시지 처리기호는 언어, 그림, 사진에서 최소 두 개 이상이 함께 포함된 뼈라를 살펴보았으며 메시지 작성에 사용한 언어는 한글, 영어, 중국어 등 구분하지 않았다. 뼈라의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 '사회기호학' 개념을 통해서 이미지를 읽어내고 어떻게 이미지의 의미를 산출하는지 그리고 해당 이미지보다 넓은 의미의 체계와 관련되어 작동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크레스와 반 르위웬(Kress, G. and van Leeuwen, T.)의 사회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시각 기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코딩은 분석대상 사례 수가 많지 않고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뼈라의 이미지가 어떠한 영상 관습, 기호들에 의해 표현되고 어떠한 사회적인 의미를 기호들이 전달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사회기호학은 기호를 만드는 사람의 문화적, 사회적, 심리학적 역사의 생산물로서 기호 생산자는 표현하고자 하는 기의인 의미를 갖고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기표인 형식에 어울리는 기의를 기호학적 양식을 통해 표현한

다. 인쇄매체는 언어기호(문자)와 도상(icon)기호(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심볼, 로고 등)로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적으로 시각화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제품에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기호들이 의도적으로 구성된 텍스트이다. 이러한 텍스트는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기호이며 이것이 다시 기표가 되어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기표(signifier)는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는 기호의 이미지로서 의미의 운반체이고 기의(signified)는 기표가 담고 있는 의미이다. 즉 기표는 현실적 차원의 것이며 기의는 추상적 차원의 것으로 구분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분리가 불가능한 것이다.²⁶⁾ 이 의미 하나 하나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체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메시지(message)란 발행주체가 뼈라의 대상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또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즉, 메시지란 수용자와 어떠한 사상에 대한 정보, 경험, 감정, 의견, 의미 등을 공유하거나 또는 그 사상과 관련된 수용자들의 태도, 의견, 행동 등을 변용시키기 위해 수용자에게 보내는 커뮤니케이션 자극의 하나이다. 그러나 메시지가 그 사상에 관한 단순한 정보, 지식, 감정, 의견, 의미나 주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언어나 그림 등의 기호(symbol of sign)로 기호화하는 동시에 처리한다. 메시지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정보원 또는 송신자가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지식, 감정, 의견 등과 같은 정신적인 메시지 내용이다. 둘째는 이러한 정신적인 내용을 수용자에게 전달 가능하도록 그것들을 언어나 도형, 사진 등으로 기호화(encode)해 놓은 메시지 기호다. 마지막은 이러한 내용이나 기호들을 수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그들로부터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일정한 구조나 체계에 따라 조직, 배열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소구방법들이나 문체들을 사용해서 고안해 놓은 메시지 처리가 그것이다.²⁷⁾

26) 페르디낭 드 소쉬르(최승언 역), 『일반언어학 강의』(민음사, 2006), p. 23.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들은 백터, 시선의 시점, 시선의 처리, 대칭 및 균형, 위와 아래, 중앙 대 가장자리, 현저성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시각이미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담고 있다. 하나의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과 모든 사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 연결되어 의미를 생산해낸다. 이미지 화면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힘이 있어 그 방향성에 맞추어 우리가 이미지를 해독하게 된다. 이때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는 방향성을 백터(vector)²⁸⁾라고 부른다. 백터는 이미지에 재현된 참여자를 연결하는 선 또는 대각선을 만들어 내게 되어 서사의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미지 내의 행위자(actor)와 목표물(goal)과 반응자(reactor)가 형성된다. 행위자는 백터가 발산되는 사람이나 사물이거나 혹은 스스로 백터를 형성하는 사람이나 사물이며 목표물은 백터가 가리키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한다. 반응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시각에서 재현된 대상의 시선 방향이 백터의 특별한 유형이 되는데 이는 시선 방향에 대한 반응(reaction)을 만들어낸다. 이미지를 보는 관객들은 재현된 대상의 시선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경우인 교류적(transactive)시선과 알 수 없는 경우인 비교류적 시선(non-transactiv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선의 문제는 재현된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백터가 시각적 요소들의 관계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백터에 대한 이해와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지에 재현된 등장인물이 관람자를 응시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의 설정을 의미하며 관람자의 입장에서 동일시를 확대시키면서 어떤 상상적 관계에 몰입하게 한다. 살포된 뼈라를 본 유엔·한국군, 북한

27) 이명천·김요한, 『광고학 개론』(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 235.

28) 아마도 스크린 내에서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의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이끄는 방향적 힘일 것이다. 백터라고 불리는 이들 힘의 요소들은 실제 물리적 힘처럼 강력할 수 있다. 각각의 백터는 방향적 확실성에 대한 중요도나 강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성을 지니는 요소이다. 주창윤, 『영상이미지의 구조』(나남, 2003), p. 84.

군, 남북한 주민 등은 뼈라의 이미지에서 의도한 백터에 따라 시선을 해당 방향으로 향하고 그 방향성에 맞추어 이미지를 해석하게 된다. 또한 이미지의 시선, 중심과 주변, 현저성에 따라 해석의 강도와 방향은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

이미지는 관람자와 그림 프레임 내부 세계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만든다. 이러한 방식에서 그들은 관람자와 상호작용하며 재현되어지는 것을 향해 관람자가 행하는 태도를 제시한다. 연결, 고리, 시점들이 이러한 의미의 실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지에 등장하는 인물의 시선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등장인물이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면 관람자도 자연스럽게 그곳을 바라보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이들은 관람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연결을 만든다. 이러한 그림을 요구(demand)/제공(offer)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림 안의 등장인물이 상징적으로 관람자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얼굴표정과 몸짓의 방식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관람자에게 비위를 맞추는 웃음을 보이거나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관람자를 지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그림 안의 등장인물이 관람자 쪽이 아닌 하나의 배경처럼 위치하고 다른 어떤 곳이나 사물, 사람 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공이라 한다.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는 총체적인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뼈라의 이미지 각도와 시선 처리는 사회적 관습이나 관람자의 관계에 의해 '친밀감'이나 '경계심'을 형성시킬 수 있다.

클로즈업(close up)으로 재현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에 속하거나 속해야 하는 것처럼 재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로즈업과 원거리사이에는 많은 중간 정도의 거리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마치 일상생활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관계 사이에 많은 중간 정도의 거리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클로즈업(머리와 어깨)은 재현된 대상의 크기를 확대하므로 사물의 중요성을 강조, 사물의 질감이나 형태 세부묘사 등을 확대시킴으로써 표정에서 보이

지 않는 내면적 세계를 끌어낼 때 사용되므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나타낸다. 미디엄 샷(medium shot: 허리와 무릎사이)은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며 롱샷(long shot: 몸이 완전히 나오거나 더 먼 거리)은 크기, 모양, 위치 등 한 이미지 내 여러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연결의 의미에서 객관적인 거리를 나타낸다. 각도(angel)는 선택된 소재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나 논평이라 볼 수 있다. 수평적 각도는 관람자가 재현된 대상과의 평등한 관계를 드러낼 때 이용된다. 수직적 각도는 재현된 대상이 높은 각도로 보여지면 상호작용적 관람자와 재현된 대상 사이의 관계는 상호작용적 관람자가 재현된 대상보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재현된 대상이 낮은 각도로 보여지면 상호작용적 관람자와 재현된 대상 사이의 관계는 재현된 대상이 상호작용적 관람자보다 힘을 갖는 것으로 묘사된다. 동등하면 힘의 차이다 없는 것을 의미한다.²⁹⁾

정보가치는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이미지를 바라보는 독자와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성요소 배치에 의해 전체에서 특별한 요소의 역할이 지면 공간의 왼쪽에 놓이거나 오른쪽에 놓이는 것, 중앙과 가장자리, 위 또는 아래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의 구성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배열은 문자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 한글과 영어 등 대부분의 문자 언어들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자 언어의 가독 방향은 왼쪽과 오른쪽에 따라 다른 문화적 가치를 가진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왼쪽은 과거(이미 쓰여졌다는 의미에서)를 오른쪽은 현재나 미래를 의미한다. 시각 텍스트에서 왼쪽 지면에 위치하는 것과 오른쪽 지면에 위치하는 것을 보면 문자 언어의 관습을 그대로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크레스와 반 르위웬에 따르면 왼쪽에 위치한 요소는 기존의 것으로 재현되며 오른쪽에 위치한 요소는 새로운 것으로 재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것은 관람자나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또는 친숙한 것을 재현하며

29) Kress, G. and van Leeuwen, T.(199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London: Routledge, p. 146.

새로운 것은 관람자나 독자에 의해 알지 못하는 것, 아직 동의되지 않은 것, 따라서 관람자나 독자가 특별한 관심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위, 아래와 관련해서 위에 놓은 것은 이상적인(ideal) 것이고 아래에 놓은 것은 실제적인(real) 것이다. 이상적인 것은 일반적인 본질로서 재현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실제적인 것은 이와 반대로 맥락에 따라 특별한 정보, 현실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가장자리 요소를 함께 유지하는 것으로서 보여진다. 가장자리 요소는 중앙에 의해 함께 유지되는 요소이다. 지면의 윗부분이 문자 텍스트로 채워지고 아랫부분이 그림으로 채워진다면 문자 텍스트가 지배적 의미를 전달하고 그림은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지의 구성에서 한 요소를 중간에 위치시키고 다른 요소들을 주변에 배치하는 중심과 주변의 구성이 있다. 중심으로 제시된 것은 정보나 이미지의 핵심으로 주변에 위치한 요소들을 지배한다. 주변은 중심에 대해서 의존적이거나 보조적인 셈이다. 대부분의 경우 주변에 위치한 대상의 지위는 서로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주변에 위치한 요소들 사이에 어떤 위계질서를 찾기는 어렵다. 중심과 주변의 구성은 왼쪽과 오른쪽의 구성에서 보여주듯 '이미 알려진 것'이나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구분점이 없으며 위와 아래의 구성에서 보듯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으로 분리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중심과 주변의 구성 내에서도 중심의 왼쪽과 중심의 오른쪽에 배치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중심의 위와 아래에 위치하는 것 외에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기호학적 분석은 이미지에 나타나 사회기호학적 요인들을 재현적·상호작용적 분석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재현적 분석을 통해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상호작용적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역할에 관한 현재, 미래, 과거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뼈라 속 이미지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렇게 되기 싫다면 뼈라의 문구대로 해야 한다는 식의 유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저성이란 구성요소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게 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것은 배경의 위치, 상대적인 크기, 색의 대비, 명료성의 차이 등에 의해 구체화된다. 이것은 이미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미지의 요소들을 어느 위치에 배열하는가와 관계없이 현저성은 요소들 사이에 중요성을 계층적으로 분리해 놓음으로써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주의를 끌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택함으로써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현저하게 표현된 구성요소들은 이미지 전체 내에서 계층적 체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시각적 주목과 함께 의미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게 된다.³⁰⁾

뼈라는 더 많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 '편 가르기'를 하는데 좋은 우리 편과 나쁜 저 편은 피아의 구분을 분명히 하면서 정체성이 혼란된 주체들에게 보다 분명한 선택을 강요한다. 뼈라는 이러한 분리과정에서 재현된 이미지에 백터를 형성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현저성을 가지고 관람자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한다.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미지는 양국을 대표하는 상징기체가 사용되며 이상적인 가치를 전달함과 동시에 이상적인 그 무엇인가는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요인을 통해 사회기호학적 시각에서 뼈라의 특성을 검토하고 뼈라의 논리, 효과 등을 도출해 본다면 교전 당사국들의 군사전략, 점령정책, 선전정책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수용양상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0) 주창윤, 『영상 이미지의 구조』(나남, 2003), p. 103.

4. 삐라의 사회기호학적 분석

기호학적 관점에서 삐라는 그 자체가 기호이며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기호들이 의도적으로 구성된 텍스트이다. 즉, 삐라 텍스트는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기호이며 이것이 다시 기표가 되어 이차적 의미인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삐라는 기표의 두 축을 이루는 언어메시지와 도상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언어적 메시지가 도상적 메시지보다 의미적으로 더 변별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상적 메시지는 사물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능력이 언어기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언어적 메시지와 도상적 메시지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1]은 구렁이로 변한 공산당이 농민을 바라보고 농민의 입에서 나온 각종 물건들, 그리고 적색의 '농민의 고혈을 짜는 공산당'의 텍스트가 백터 방향을 형성하고 있다. 관람자가 대상보다 위에서 보는 시점이며 사회적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중앙에 파리를 틀고 있는 구렁이의 모습과 북한군 모자, 소련국기의 망치와 낫이 주의를 끌고 있다. [그림 2]는 스탈린 동상과 그의 양손이 들고 있는 칼과 포크, 상에 올려진 북한과 인민이 담겨진 그릇, 그 상을 준비한 듯한 김일성의 뒷모습이 백터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백터를 형성하는 스탈린 동상이 행위자이며 능동자로 보이며 관람자보다 위에서 응시하고 있다. 소련의 국기인 망치와 낫, 전체적인 적색³¹⁾ 바탕이 현저성을 이루고 있다. 과거 소련이나 현 중국의 국기를 보면 배경이 빨간색이고 붉은 군대의 명칭이나 부대기, 군복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 이 두 나라가 6·25전쟁시에도 북한을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 계열을 빨간색에 비유하여 빨갱이나 빨치산이라 부르고 있다. [그림 3]은 빼앗긴 소를 보고 있는 농부와 그 옆에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여성 그리고 나무 위의 텍스트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소를 끌고 가는 중공군이 백터의 방향이며 동일한 눈높이로서 관람자에게 어느 정도 동등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공산당은 구렁이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때론 해골의 끔찍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전쟁으로 시작된 피아의 증오는 삐라에서 고스란히 그려져 상대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대화의 상대가 아닌 박멸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31) 색은 보는 사람에게 광범위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따뜻한 색(빨강, 오렌지, 노랑)은 공격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파랑: 신뢰, 감수성, 충성심, 양육, 경건, 성실, -갈색: 활력, 수용성, 관능성, -녹색: 재생과 성장, 조화, 풍요, -오렌지: 경쟁, 흥분과 활동의 색, -빨강: 충동과 강렬함, 피와 성욕, 젊음과 힘, -노랑: 철학적, 지적

Art Silverblatt & Jane Ferry & Barbara Finan(1999), New York: M. E. Sharpe, 송일준 역,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법』(차승, 2004), pp. 384-385.

[그림 9]



[그림 10]



화살표는 시간의 경과를 표현한 것으로 학생 때,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군 뼈라는 정치적, 이념적, 도덕적 공세 및 투항 권유, 사기저하와 전의상실 유도를 주요한 내용으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적의 전투력 저하와 내부와해를 노렸다.

[그림 11]은 무언가를 건네는 남한군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미군이 중앙에 위치하여 두 인물의 관계성을 알 수 있다. 중앙의 위치는 전체 이미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성을 뜻하며 주도적인 행위이다. [그림 12]는 왼쪽 위에 위치한 보름달과 그 밑의 병사들 그리고 오른쪽 위의 장교 모습이 백터로서 형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프레임 위에 위치한 장교는 이상적인 부분을, 밑에 있는 병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으로

[그림 11]



[그림 12]



보이고 있다. 북한군 발행 뼈라는 미국과 이승만 정권 또는 남한군 장교와 일반 사병이나 주민과의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적군의 전쟁목적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비판 및 적군 내 분열조장, 투항방법 안내 등이 있다.

[그림 13·14·15]는 전체적인 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진이 보충하는 역할로서 삽입되어 있는 형식의 뼈라로 프레임의 위에 위치한 큰 텍스트가 백터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군 발행 뼈라는 유엔군 발행 뼈라보다 텍스트가 많이 조합되는 경향이 많으며 분노, 슬픔, 절망 등의 정서유발의 감정적 소구의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산독재와 소련,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미군의 뼈라에서 나타난 반면, 북한과 중국군 발행 뼈라에는 전쟁을 일으킨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 괴뢰도당을 비판하는 주제의 뼈라가 살포되었다. 유엔군을 대표한 미군을 일본과 동일시하여 한민족의 원수로 규정하거나 유엔군이 민간인 강간, 살인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포하였다. 이러한 뼈라주제 자체가 6·25전쟁이 이념전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그림 16·17]은 왼쪽의 인물로부터 오른쪽의 해골로 대각선방향의 백터가 형성되고 있으며 해골이 프레임의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이거나 실제적인 것을 뜻한다. 백터를 발생시키는 대상은 이미지 속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된다.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뼈라는 명분 없는 6·25전쟁과 현재 처한 추위와 배고픔, 죽음의 두려움, 고향의 가족들 기억을 유발시켜 생명을 아끼려면 이탈하라는 전의상실과 미국과 한국을 비방 중상모략하는 반한·반미 선전선동을 전개했다.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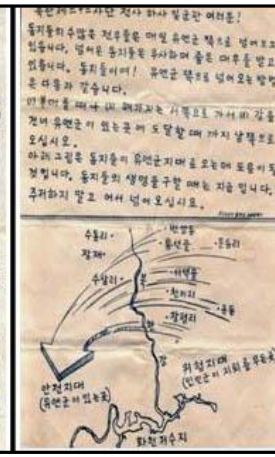
[그림 18]은 오른쪽 해골에서 왼쪽 여성과 아이로 대각선방향의 백터가 형성되고 있으며 왼쪽 위의 텍스트가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9]는 프레임 중앙의 군인과 쓰러져 있는 전우, 그리고 4개의 말풍선이 백터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림 20]은 텍스트와 앉아 있는 군인이 백터로 형성되어 있고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어 관람자에게 객체화된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다. 뼈라에는 체제 현실에 대한 불만족, 빈곤과 억압에 시달리는 처참한 삶의 모습과 가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그림들로 자신을 기다리는 부모와 아내, 자식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그림 21]은 텍스트 위주의 뼈라로서 뼈라의 제목과 뼈라를 발행한 부대 및 지휘관 성명, 북한군 장병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는 대치 중인 북한군을 대상으로 귀순하기 위한 장소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그림 23]은 식사를 하고 있는 군인과 간호사, 운동을 하는 모습의 사진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백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중 프레임 구조로 다량의 정보를 한 장에 포함시키기 위해 구성하였다. 사진 속의 인물은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귀순권유는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비슷한 문장의 '안전보장 증명서'와 먼저 귀순한 사람들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과 사진을 문장과 함께 구성된 뼈라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선전의 기본원리인 단순화와 반복의 원리가 충실하게 적용되었으며 변화를 주면서 반복하는 기법이 활용되는 것은 반복이 진실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³²⁾ 귀순권유 내용은 양쪽 모두 귀순을 하면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으며 다친 곳을 치료받을 수 있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선전되었다.

[그림 24]는 4장의 사진이 중앙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좌우로 백터가 형성되어 이미지를 양분하고 있으며 왼쪽은 현재, 오른쪽은 미래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어 갈등을 유발하는 뼈라로 보인다. [그림 25]는 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항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미군의 뼈라에서 투항을 권유하는 뼈라가 2/3을 차지했는데 군인 개인들이 일정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그 수위를 조절하였다. 즉 투항의사를 유도하는

[그림 24]



[그림 25]

향수를 자극하고 투항을 압박하도록 죽음을 연상시키며 포로의 신변보장과 물질적 환대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또한 투항 방법을 안내하거나 항복직전에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유발하는 등 그 수위를 나눌 수 있다.

[그림 26]은 [그림 21]과 같이 북한군이 발행한 신변안전보증서로서 남한군과 유엔군을 대상으로 한글과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눈에 현저하게 보인다. 유엔군과 북한군은 상대방 뼈라를 서로 모사(模寫)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귀순을 종용하는 뼈라, 군인에 의한 부녀자 겁탈과 가정파괴를 주제로 한 뼈라, 민중의 곤궁과 지도자의 환락을 비교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림뿐만 아니라 주제외식에서도 상대방 뼈라를 서로 활용했다. [그림 27]은 프레임 위쪽의 텍스트로부터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방향으로 백터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한 인공기가 선명하게 보인다. 북한군이 발행한 뼈라는 신변안전보증서를 통해 투항한 한국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살포했는데 인민군으로 진급한 모습이거나 식사, 운동,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귀순 및 투항을 선전·선동하였다.

[그림 26]



[그림 27]



32) Prarkanis A. R. & E. Aronson(2001), *Age of propaganda: The everyday use and abuse of persuasion* 윤선실 외 3인 편역,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 전략』(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그림 28]



[그림 29]



[그림 28]은 해골에서 서있는 군인과 텍스트 방향으로 백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골과 군인의 시선이 명확하진 않지만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람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 29]는 5장의 사진이 전체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러한 구성을 사용하였다. 가장 밑의 사진에서 웃고 있는 군인이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관람자에게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의상실을 유도하기 위해 싸움의 의미를 서로 정반대의 논리로 주장하면서 보호해야 할 고향의 아내와 자식, 부모님을 연상하게 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포로의 신변 보장과 포로에 대한 물질적 환대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림 30]은 중앙의 죽어 있는 여성과 울고 있는 아이, 여성이 들고 있는 물체 방향으로 백터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앙의 대상을 제외한 빈 공간에 텍스트가 채워져 있다. [그림 31]은 중앙의 군인의 시선에서 왼쪽 손끝

[그림 30]



[그림 31]

그리고 끝까지 뻗어있는 도로방향으로 백터가 형성되어 있다. 왼쪽은 어둡게, 오른쪽은 환하게 표현되어 왼쪽은 군인에게 과거나 현재를 그리고 오른쪽 방향은 새롭고 밝은 미래를 뜻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 강원도 경북 전라도, 경남의 일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게릴라 부대와 남로당 조직 및 당원들의 저항 투쟁을 고무 충동하는 선전·선동은 한국과 미국에 반대하고 한·미군을 비방하는 중상모략 선전을 위주로 전개했다.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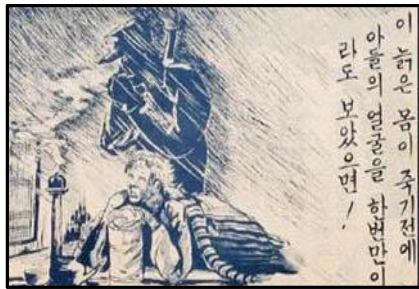
[그림 33]

[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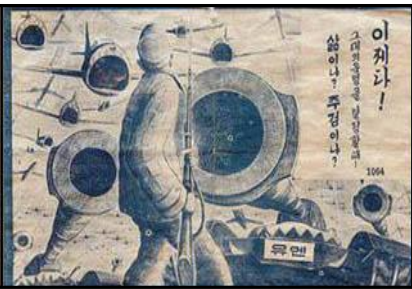


[그림 32]는 해골의 시선이 명확한 백터로서 관람자와 동일한 눈높이로 클로즈업되어 관람자에게 친밀한 대상인 것처럼 관계를 형성시켰다. 해골의 시선은 강하게 관람자로 향하고 있으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33]은 중앙의 폭탄을 중심으로 수개의 폭탄에서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텍스트 방향으로 백터가 형성되어 있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의 국기가 폭탄마다 그려져 있어 주목성을 강화시켰다. [그림 34]는 말뚝에서 시체를 보고 있는 까마귀로부터 시체방향으로 백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시선 없는 눈동자가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다. 까마귀가 쳐다보고 있는 시체, 시체가 보고 있는 관람자 결국 까마귀는 능동적이고 시체와 관람자는 수동적 인물로 표현된 뼈라이다. 감성적이며 위협적인 소구방식으로 귀순을 권유한 뼈라도 있는데 적절한 공포는 사람들의 생각과 에너지를 위협요인 제거에 쏟게 하고 그 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전쟁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연상 효과를 사용하여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의 급박함에 걸맞게 뼈라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주검이 닥쳐 온다'라는 표어가 빈번하고 해골을 그려 넣어 전쟁의 끔찍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통해 가장 원초적인 삶의 본능을 자극하여 상대의 전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수단이다. 뼈라를 통해 죽음은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어떤 선택이든지 그것은 삶과 죽음을 내걸어야 하는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35]



[그림 36]



[그림 35]는 노모의 시선과 초롱불, 아들의 모습이 백터로 볼 수 있으며 관련내용의 텍스트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6]은 거대한 포신과 그 앞에 있는 군인으로 이루어진 백터를 찾을 수 있으며 중앙의 과장된 포신은 이미지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중요성을 더욱 나타내고 있다. 뼈라가 심리적 전술에 이용되기도 했는데 유엔군의 전략적 우위인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엔의 공군력을 통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도 하였다. 북측에 있는 비행장과 철도가 파괴된 사진을 보여주거나 폭격지점을 적시한 지도를 보여주기도 하며 폭격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림 37]은 왼쪽의 북한군 손과 타고 있는 종이, 불붙은 성냥개비, 성냥을 잡고 있는 미국의 손 방향으로 백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림 38]은 텍스트 위주의 프레임으로 삽화는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림 39]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과 텍스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텍스트들은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림 37·38·39]는 모두 휴전회담과 정전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뼈라로 북한군의 뼈라 중에는

[그림 37]

[그림 38]

[그림 39]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휴전회담 지연을 비판하고 전쟁에 반대하며 평화를 애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미군은 발행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미국이 괴뢰 이승만 도당을 사주해 침략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휴전회담을 촉구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0]은 유엔군이 발행한 뉴스보도 형식의 뼈라로서 유엔기, 제호, 태극기가 관람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림 41]은 맥아더 장군의 클로즈업 사진으로 관람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나'와 '너' 사이에 상호 개인적인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람자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이는 관람자에게 친밀한 대상인 것처럼 관계를 형성시키며 동시에 관람자와의 관계성을 보일 수 있다. [그림 42]는 북한군이 발행한 뉴스보도 형식의 뼈라이다. 유엔군의 정책과 방침을 설명하는 뼈라는 유엔이 한국을 굳건하게 지원한다는 내용, 전황을 전해주는 유엔군 총사령부의 라디오 방송 사이클 안내, 남한 주민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내용이나 주민들의 행동 범위 경고안내 등과 같은 내용의 뼈라들이 이에

[그림 40]

[그림 41]

[그림 42]



해당된다. 또한 전황과 국내외 소식을 전달하는 '낙하산뉴스'와 같은 형식의 뉴스보도 뼈라가 있었다. 구체적인 행동의 유발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 심리전의 하나였다.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피난가지 못한 남한주민들은 유엔군의 뼈라를 받아보면서 미군이 남한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위안을 얻었고 반면 북한군은 불안해했다고 한다.³³⁾ 뉴스를 접하기 어려웠던 농촌지역 역시 뼈라는 소식을 듣고 격려 받는 중요한 수단으로 뼈라 그 자체가 전쟁 상황을 설명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5. 맺음말

뼈라에 담긴 정보는 대부분 매우 한정적이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림에도 뼈라는 전쟁당사자들이 6·25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6·25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근거자료이다. 6·25전쟁 기간 유엔·한국군과 중국·북한군이 살포한 뼈라 42종을 대상으로 백터, 시선의 시점, 시선의 처리, 대칭 및 균형, 위와 아래, 중앙 대 가장자리, 현저성 등 사회기호학적 분석 요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엔군과 북한군은 뼈라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모습을 그리려했는가? 양측의 적에 대한 인식과 선전, 심리전 수행 양식은 서로 거울 영상 효과(mirror image effect)를 재생산했다. 양측 뼈라는 '소련의 꼭두각시 북한' 대 '미제의 주구 이승만 괴뢰', '소련의 괴뢰 중국' 대 '미제 침략의 앞잡이 일제'라는 서로 유사한 이미지의 선전을 수행하였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적이 어떻게 주조(鑄造)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듯 뼈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33) 한국언론학회 2007년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에서 임상원 교수의 증언임.

‘편 가르기로 좋은 내 편과 나쁜 저편을 구획하며 다시 나쁜 저편 속의 나쁜 주체와 괴역압의 객체들을 분리해낸다.

빠라는 쌍방의 군사전략과 전쟁수행방식, 전쟁 철학의 차이를 반영하였다. 미군은 압도적인 해·공군력을 앞세운 물량공세에 입각해서 미군의 군사기술, 화력의 우위를 강조했다. 대신 북한군 빠라는 북한군의 정치·도덕적 우월성과 미군의 부당한 참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북한군 빠라는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메시지 소구방식으로 선동적 소구방법을 사용하여 이성적 소구(rational appeals)인 실증적, 논리적 자료들을 통하여 수용자의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성적 소구(emotional appeals)인 수용자의 감정이나 감성 또는 가치관에 호소하는 빠라가 다수 포함되었다. 유엔군 빠라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적색이 강조되었으며 귀순 종용을 목표로 한 빠라인 경우 특정한 장소, 특정시간, 특정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에 특정효과를 목표로 하는 전술심리전 성격을 보였다. 유엔군의 빠라는 이성적 소구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념전쟁의 성격이 강화되어 설득하고 이념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이성적 소구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빠라가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면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포로들이 빠라를 읽고 자진해서 항복을 결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다.³⁴⁾ 1950년 10월의 조사에서 1,737명의 포로 중 742명(42.7%)이, 11월 조사에서는 1,287명의 포로 중 334명(25.9%)이 빠라를 보고 이용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안전보장증명서 형식의 빠라는 포로로 잡힌 대부분의 적병사가 소지하고 있었고 공산당의 하급관리까지 만일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이 차츰 강화되었고 나중에는 전황이나

승패보다는 이념적·도덕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6·25전쟁기간의 빠라는 전쟁 전개과정에 직·간접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역할을 한 심리전 매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며 한반도에 냉전의 거대한 심리전장과 이로 인한 반공주의가 형성되어 남북한 국민이 서로를 원망하고 경계하는 이미지와 정서를 가지게 만들었다.

크레스와 반 르위웬의 접근 방식으로 6·25전쟁기간 살포되었던 빠라를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에 적합한 부분도 있고 다소 자의적인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지배적인 시각 언어는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표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화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관점을 견지해야 하겠다. 특히 빠라는 관람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현저성이 높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람자에게 주지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원하는 정서를 유발시켜야 한다. 따라서 설득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 재현물에 있어서 사회기호학적 접근에 대한 폭넓은 적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전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보작전의 분야가 부각되고 있다. UN의 역할, 전쟁 명분, 작전 브리핑, 지휘관의 인터뷰, 종군기자의 활용, 인터넷 및 특파원의 운용, 적국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위한 각종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활용 등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군은 정보·작전·정훈분야의 통합된 각종 매뉴얼을 준비하고 한·미 연합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성공적인 전쟁이란 적의 전투의지를 꺾어 실제 전투는 최소화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심리전은 현대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라인버거(Paul M. A. Lineberger)는 “전쟁이 없는 이 평화의 순간에도 총격전 못지 않은 무서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바로 심리전”이라고 했다.³⁵⁾ 군 간부와 장병들

34) Kim Kichoon & E. A. Johnson(1951), ORO-T-4(EUSAK) Evaluation of effects of leaflets on early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ORO, JHU, FEC. 한국학중앙연구원, 『심리전자료집 I』(선인, 2005), pp. 165-269.

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관념 강화와 전의고양, 애국심 및 국민과 군의 사기 고취 등 대국민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공보부 요원들은 자신의 임무 수행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심리전을 통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9. 14, 심사수정일 : 2009. 10. 21, 게재확정일 : 2009. 11. 17)

주제어 : 6·25전쟁, 전술심리전, 삐라, 현저성, 사회기호학, 이미지, 메시지, 정서, 이데올로기, 설득 커뮤니케이션

<ABSTRACT>

An Social-Semiotic Analysis of Leaflets in the Korean War

Park, Hyun-soo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s involving leaflets at the Korean War in terms of psychological tactics and made an analysis of the social-semiotic features of the fliers scattered at the hostilities. In this connection, this survey took a close look at 42 kinds of leaflets strewn at the battle and looked into the general features and tendencies of the leaflets issued during the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emiotic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e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how one can derive meanings from the images of the objects and how they correlate with broader semantic systems by reading images through the concepts of 'social semiotics' when it comes to an analysis of leaflet image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resorted to Kress, G.'s and van Leeuwen, T.'s social-semiotic approaches as a vehicle for focusing on visual signs.

This study aimed at clarifying how the flier images were expressed with what image practices and symbols and what kinds of social meanings the signs conveyed through these techniques. The factors of this analysis may help to investigate the features of the fliers and to draw their logics and effects in light of social semiotics, which will offer a profound insight into the military strategies, the occupation policies, and the propaganda policies of the state parties concerned and the cultural acceptance of contemporary

35) Paul M. A Linebarger, Psychological Warfare(Washington, D. C Combat Force Press, 1954), pp. 7-16.

ideologies as well.

The study shows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forged mirror-image effects from the angles of their recognition of each other, their propaganda, and their ways of waging psychological wars and that both the states' leaflets displayed social-semiotic characteristics: the ideology-based puppet-regime claims of the parties, their military strategies and their ways of waging wars, a big difference in each state's philosophy on wars and the leaflets using their tactical psychology operations.

The standardizing tendencies of visual communications based on mass media and the Internet, or currently dominant visual languages, should be kept in mind in preparation for future war. It is necessary that a wide diversity of social-semiotic application should, as far as various visual representations are concerned, be made by combining the vividness that attracts the attention of viewers with persuasive communications designed to deliver messages to propagandize and to evoke the emotions that one wants.

Key Words: The Korean War, Tactical Psychological Operations, Leaflets, Vividness, Social-semiotic, Images, Messages, Emotion, Ideologies, Persuasive Communication